

스마트 팜 관련 스크랩

2019. 02. 17. ~ 02. 22.

| 페이지 | 제 목 | 비 고 | 유형 |
|-------|---|------------|-----|
| 2-3 | 고령군, 스마트팜 기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효과 `톡톡` | 경북신문 | 인터넷 |
| 4 |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심 '후끈' | 경북매일 | 인터넷 |
| 5-6 | 발전소 폐열 이용한 스마트팜 꿈 영근다 | 매일경제 | 인터넷 |
| 7-8 | 넥스트스퀘어, 태양광-ESS 결합 스마트팜 구축 | 에너지 경제 | 인터넷 |
| 9-10 | 스마트농업·저온저장고 지원 등 428억 투입 | 영남일보 | 인터넷 |
| 11 | 영양군 미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선진농장 견학 | 뉴스 프리존 | 인터넷 |
| 12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현장에 답이있다' 소통행정 펼쳐 | 국제뉴스 | 인터넷 |
| 13-14 | 스마트팜 3년차, 토마토 생산량 247% '쑥'...너도나도 관심 | 경북일보 | 인터넷 |
| 15 | 영광군, 농민 부담 덜어주는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 뉴스핌 | 인터넷 |
| 16 | 창원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현장실증 성공 | 경남일보 | 인터넷 |
| 17 | 충북농기원 원예·축산 스마트팜 신기술 보급 확대 | 동양일보 | 인터넷 |
| 18 | 성주군,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 대구신문 | 인터넷 |
| 19-22 | "핵심 인재 키워 농촌 문화 발전 이끌 농업인 조직체 육성해야 합니다" | 한국영농 신문 | 인터넷 |
| 23 | 경북 스마트팜 도입 농가 생산량 증대·품질 향상 | 전남일보 | 인터넷 |
| 24-25 | 토마토·오이, 실시간 생육진단 척척~ | 농촌여성 신문 | 인터넷 |

고령군, 스마트팜 기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효과 '톡톡'

딸기·수박·메론·참외 등
지역특화품목 생산성 향상

전도일 기자 / jundoyl@hannamail.net | 일제 2020년 05월 17일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스마트팜 기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7억원, 새소득작목 생산 및 노동력절감 시설지원사업 45억원을 확보했다. <사진=고령군>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딸기를 비롯한 지역특화품목의 생산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기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7억원, 새소득작목 생산 및 노동력절감 시설지원사업 45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고령군의 주요 소득원인 딸기, 수박, 메론, 참외, 호박 등의 시설원에 작물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으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이 더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교체사업과 연작피해 방지와 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기술집약형 수경재배시설 현대화, 시설하우스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꾸준히 채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소득작물인 양파, 마늘 농가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수확기, 퇴비살포기 등의 노동력 절감 농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향후 지속적인 기술집약형 농업을 육성하여 농산물 수입개방(FTA)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도일 기자 / jundi542@hanmail.net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 Copyrights ©경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심 '후끈'

산 권인규기자 · ©등록일 2019/02/17 19:48 · ©게재일 2019/02/18 · 댓글 0

| 기업체들 참여의사 이어져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을 위해 기업체 및 연구기관과 회의를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상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의사와 함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주시 스마트농업추진단은 지난 15일 구미 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실증단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스마트농업육성팀(팀장 정주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스마트혁신밸리 추진단(단장 장규혁)을 비롯한 IoT특화협동조합(대표 조화주), 시설원예, 스마트 센싱, 양액기, 관수 관리시스템, 통신 등 회원사 20여 업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상주시는 사별면 엄암리 일원에 기술혁신체계 구축, 기술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지역거점 구축, 연구개발 등의 원스톱 지원을 목표로 5.61ha 부지에 공공실증·자율실증온실 및 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현 상주시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며 "실증 단지가 스마트팜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성장·확산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인규기자

발전소 폐열 이용한 스마트팜 꿈 영근다

충남 태안 스마트팜 가보니

1만㎡ 온실 시설공사 배치됨
KIST, 벡데이터 AI 기술제공
서부발전 농어촌상생협력금 기부

5년간 5만㎡ 토마토농장 조성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될 것"

한영준 기자 | 입력 : 2019.02.17 17:16:00 | 수정 : 2019.02.17 20:05:34



▲(왼) 33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스마트팜영농 체험관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부발전, 농어촌상생협력금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가운데) 1만㎡ 규모의 일차온실에는 토마토가 식재되며, KIST가 제공하는 스마트팜솔루션을집약연구단 내 실험실(오른쪽 사진)에서 작물의 자라게 한다. (사진 제공 = KIST)

지난 15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1만㎡ 규모 용지에 유리로 둘러싸인 온실이 거대하게 다가왔다. 온실에는 식물이 자라날 베드가 천장에서 내려온 중에 매달려 줄지어 있었다. 시설 공사 작업이 마무리 단계였으며, 다음달 5월부터 토마토 씨가 스펀지 같은 베지에 심겨져 베드 위에 설치된다. 이곳 스마트팜은 화력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됐다가 버려지는 온배수의 폐열을 국내 최초·최대 규모로 활용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태안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서부발전, 원북면영농협회가 지난해 2월 사업 협약을 맺었다. '한국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것이다. 스마트팜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문제인 난방 비용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 주 사용 연료인 경우 대비 70~80%까지 절감된다. 스마트팜 건설과 4.2km 길이의 발전소 온배수 이송관로, 열 교환기, 히트펌프 등 관련 비용 38억원은 서부발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전부 부담했다. 또 KIST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통합 솔루션 기술을 사용해 해외 기술에 대한 로열티 비용도 줄었다. 교육도 KIST에서 담당해 향후 농민들이 스마트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상덕 원북면영농조합법인 사무장은 "원북면은 간척지인 데다 땅에 염분이 높고 농업용수가 부족해 벼의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부분 휴경 상태로 방치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실에서 올해 350t 가량의 토마토를 생산하면 8억원의 매출액과 지역민 17명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웃어 보였다.

태안군의 스마트팜은 지속적인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계획된 대로 5년간 5만㎡ 규모로 스마트팜이 확대되면 매출이 총 168억원 발생하고 일자리는 55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되는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작물을 계속하는 카메라와 센서 등 생체 계속 기반 환경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리온실 관리 대부분을 원격지능과 벡데이터 등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단순 시혜적 사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은 민·관·공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예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2017년부터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이 총 541억원을 기부했으며, 지난달까지 총 59개 사업에 227억원이 사용됐다. 관련 사업도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 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기부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기부금 처리와 지정기부금 처리에 따른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를 10%씩 중복해 받을 수 있다"며 "해당 법인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 대상일 경우 농어촌기금 출연금액의 3배를 투자 상생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과세되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효과도 있다"고 혜택을 설명했다.

[태만 =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넥스트스퀘어, 태양광-ESS 결합 스마트팜 구축

* 이현정 기자 kiotrapeople@ekr1.kr 2019.02.18. 09:30:06

이현정 기자 kiotrapeople@ekr1.kr 2019.02.18. 09:30:06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에너지기술과 ICT 융합기술 선도기업인 넥스트스퀘어(대표 김형준)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결합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안전지원제를 진천삼채나라에서 진행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삼채나라(대표 김선영)에 구축될 태양광-ESS 결합 스마트팜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무선 IoT(LoRa) 기술을 적용, IoT 디바이스와 각종 환경센서 등을 통해 현장의 상황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다.

무선 IoT(LoRa) 기술은 기존 유무선방식에 비해 구조물 배치에 상관없이 설치가 매우 용이하며 노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 운영 현황과 삼채식물의 생장 조건들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후 빅데이터 기술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위치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시각화돼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제어도 가능하다.

이날 안전지원제에 참석한 김형준 사장은 "이번에 구축되는 태양광-ESS결합형 스마트팜은 작물재배를 위해 효율적 통합운영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기존 농지위에 태양광과 ESS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작물재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저감하면서도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넥스트스퀘어는 올해 4월 구축 완료 후 더 많은 태양광-ESS결합형 스마트팜 레퍼런스를 확보, 국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

달성군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김원수 달성군수(왼쪽 셋째)가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농산물 가공 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달성군청 제공)

대구 1등 농업 지자체로 자리매김한 달성군청이 올해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군청은 맞춤형 지원으로 농촌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불어넣고자 관련 분야에 4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농업 선진화 실현을 위해 스마트 농업과 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무연황기 항공방제, 사물인터넷 캡슐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IoT 캡슐 제공…소전염병 예방

5700여곳엔 군비로 항공방제
6억 들여 농기계임대 확대 등
지역맞춤 도움으로 활력 모색

◆스마트 농업 실현

군청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oT(사물인터넷) 캠퍼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번식용 소 300두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센서(바이오 캠퍼스 등)를 체내에 삽입하는 사업이다. 생체 정보가 모바일로 전송돼 가축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 활동량·체온·pH(수소이온농도) 변화를 파악해 발정기와 가축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올해 지역 축산농가에 200개의 캠퍼스를 지원한 뒤 향후 호응도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청은 이 밖에도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도 벌인다. 주요 내용은 무인방제기, 환풍기, 전동운반기, ICT 스마트팜, 에너지절감시설 등의 지원·지도다.

◆농업인 교육·지원

지난해 9월 준공된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는 농식품 가공에 경험이 없는 농업인도 위생적이고 표준화된 고품질의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공제품을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자운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농업인이 수확기에 농산물의 대량 출하를 막고, 장기 보관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127곳에 제작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선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5천700여 농가(2천703ha)가 대상이다.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인헬기 방제에 드는 경비는 전역 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농기계 임대 확대

현재 3개소 94종 479대 규모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군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7천289건이다. 이 가운데 수리실적은 752건, 택배 실적은 277건이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는 6억원을 들여 밭작물에 사용 가능한 트랙터 등을 도입한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역 400여 농가에 농기계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예년보다 대폭 상향된 5억2천만원이 편성됐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지역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에 필요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양군 미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선진농장 견학

류 유상현 기자 | 승인 2019.02.18 11:48 | 수정 2019.02.18 12:12 | 댓글 0



영양군 미래청년농장

[뉴스프리존, 경북=유상현 기자]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미래농업 주역인 청년농업인 4H연합회원 20여명과 2월 18일 ~ 19일 1박 2일간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선진농장 견학을 추진한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곳곳이 고향을 지키는 청년농업인 4H 연합회원들은 기존 농업의 계승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농업 기술 정보 수집을 위해 ICT 활용 스마트 온실 현장 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재배기술교육을 위해 스마트팜 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장을 방문하여 견학 및 벤치마킹을 하고자 한다.

이영준 영양군4H연합회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새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밭 배운 대저로 지역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충전하고 홀로서기보다는 회원 간 정보를 나누고 연구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래농업 주역인 청년농업인 4H회원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술교육과 병행하여 적극적인 기술연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상현 기자 ycstory1@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선=김제시)

(김제=국제뉴스) = 김제농업기술센터 김병철 소장은 취임 후, 첫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주말인 16일을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22개소를 방문.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 논에 탁 작물재배 확대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장' 등이다.

아울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김제시로의 귀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 귀농귀촌 협의회'를 방문.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 부량 벽골제 전복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

서·구제의 특별방역 소독시설 및 이동형제 소독차(4개소) ▲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장,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장, ▲ 민간육종연구단지 ▲ 첨단농업종자사업소 등 22개소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고품질 쌀 생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권역별 특화·고소득작목 육성,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설교육, 영농기술개발 등 김제시 농업 발전을 위해 집중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투자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리고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받는 농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병철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업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비점 보완,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소득을 올려 김제의 농업을 전국에 알리고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G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스마트팜 3년차, 토마토 생산량 247% '쑥'...너도나도 관심

경북도 신규전입농가 지원 확대

경북일보 기자 jang@yeongbuk.com | 경북일보 2019년 12월 17일 20:15:32

댓글 0



스마트팜 컨트롤 + -



아름농원 시설하우스 내부 모습.

9년 전 귀농해 경주 강동면에서 아름답농원을 운영하는 김인수(45)씨는 스마트팜 도입 3년 만에 예천문자가 됐다.

기존 토마토 시설하우스에 2000만 원 스마트팜이 더해졌을 뿐인데 생산량은 30%가량 늘었다. 토경재배시 제곱미터(㎡)당 7kg 수준에 머물렀던 생산량이 고설 양액시설과 스마트팜 ICT를 도입 후에는 247% 증가한 24.3kg까지 높아졌으며, 30% 가까이 나오던 동외 상품도 전량 출하가 가능할 만큼 품질이 균일하면서도 좋아졌다. 게다가 투입 노동력도 3분의 1로 줄었다하니 이쯤되면 스마트팜 예천문자가 될 법 하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스마트팜 도입농가와 면적은 314농가 146ha로 집계됐다. 시설원에 ICT융복합 확산 지원을 시작한 2014년 4ha에 비해 142ha가 늘어난 면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설비 관련 인증제도와 표준화 미비로 높은 투입비용에 비해 스마트팜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낮았지만, 최근 스마트팜 도입 효과를 보는 농가들이 생겨나면서 신규 진입농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이처럼 도입 농가가 증가하고 관련 예산지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시설원예 분야 ICT융복합확산 사업예산을 지난해 보다 4배 증가한 19억5600만 원을 확대, 투입한다.

또 우수한 도입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동시에 선도농가와 관련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스마트팜이 전파, 홍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스마트팜 시장 부각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과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유치, 올해부터 2021년까지 상주시 사벌면 일대에 전진기지를 조성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현재 시설원예와 축산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주로 보급되고 있는데 스마트팜은 비단 첨단온실·최신식축사 뿐만 아니라 기존 농가들이 보다 편리하고 향상된 결과물을 얻는 모든 과정들이 스마트팜이라고 보면 된다"며 "각 지역마다 다양한 품목과 형태로 스마트팜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복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영광군, 농민 부담 덜어주는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본 기사 발행 : 2019년02월20일 08:00 / 최종 수정 : 2019년02월20일 08:00

가+ 가- 프린트 좋아요 0건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시설비 부담을 느끼는 영세한 농가를 위해 '보급형 스마트팜 개발모델' 사업설명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기존 스마트팜 시설비용의 65% 수준으로 설치비를 낮춰' 농가의 규모에 맞도록 3가지 유형의 모델을 개발했다.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 설명회에 참석한 농민들 (사진=영광군)

단순형(1형)은 업체류, 수박, 시설감자 △복합형(2형)은 3~6개월 단기간 재배하는 딸기, 멜론, 오이 △연동복합형(3형)은 연중 재배하는 토마토, 파프리카 등에 적합한 모델이다.

특히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은 농가가 직접 제어 패널과 보드를 쉽고 간단하게 설치 및 교체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이다.

시설원에 농업은 재배기술의 향상과 시설 현대화·자동화 등에 따라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데 영세한 농가는 시설비 부담으로 스마트 팜 설치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협전남지역본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 농협과 지자체 협력에 산을 지원하여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설치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화 시범 사업은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된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원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현장실증 성공

✎ 이은수 | ☎ 승인 20190218 2021 | 💬 댓글 0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중)는 2018년 추진한 스마트팜 시설원에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국화농가에 도입한 스마트팜 현장실증 재배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팜이란 농업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4차산업의 대표적 분야이다. 스마트팜 시설원에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2개소에 총사업비 500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센서노드, 제어기노드, 스마트 영상장비를 설치한 사업이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팜 시범 성공 사업장을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환경제어 컨설팅 등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2019년에도 총사업비 1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황규중 소장은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과학적 관리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촌에서 문제되는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통해 스마트팜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수

다른기사 보기

충북농기원 원예축산 스마트팜 신기술 보급 확대

글 지영수 | ○ 승인 2019.02.19 19:05 | ☞ 댓글 0

16억원 투입...자동사료급여기술로 로봇활용생산성 향상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농업연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워지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모델인 '스마트팜' 집중 육성에 나선다.

스마트팜은 온실·축사 등의 농업시설에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장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최적의 하우스환경을 조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농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농기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자동제어기술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노동력이 20% 정도 절감됐고 생산량과 품질은 10~15% 향상됐다.

이에 따라 농업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술들을 도입할 방침이다.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등 원예 분야 4종 12곳에 11억4000만원과 자동 사료급여기술, 로봇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축사 질병 재해예방기술 등 축산분야 5종 15곳에 4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농기원은 대농업인 스마트팜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괴산군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개설해 농가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별서 기술보급과정은 "농업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농업혁신의 중요수단인 스마트팜을 연차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 충북이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저작권자 © 동양일보 '여왕의 푸른 것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영수**
다들기적 보기 +

성주군,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성주총식 | 승인 2019.02.19 21:30 | 댓글 0

**총 17개 분야 63곳 대상
신기술 보급 22억 투입**

성주군은 '성주형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등 농업신기술 보급을 위해 22억2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총 17개분야 63개소에 대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업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심의위원들이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 함께 성주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 깊은 토론을 가졌다.

확정된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작목별 전문지도사의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결과 평가회를 실시해 확대보급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 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키로 했다.

김정애 군 농기센터 소장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참외와 함께 축산, 귀농귀촌,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반성장을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핵심 인재 키워 농촌 문화 발전 이끌 농업인 조직체 육성해야 합니다"

[인터뷰] 권순직 남양주시 농업 기술 센터 소장

세종특별자치시 | 2019.02.21 11:05



[편집자주] 남양주시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어서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른바 '도농 복합형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는 남양주시는 스마트 농업을 보급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농업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남양주 농업을 이끌고 있는 남양주 농업기술센터 권순직 소장을 만났다.

Q 남양주시는 도농 복합형 친환경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런 특징을 살려서 남양주 농업 기술 센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촌 모델이 있을 것 같다. 설명 부탁한다.

- 서울 대도시 근교 남양주는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여 인공 지능,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작물 재배와 가축의 생산성 향상, 지역 특화 작목과 농업 기술을 결합한 농촌 융복합 산업을 농촌 모델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촌 지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농업인 이용을 위한 스마트팜의 핵심인 빅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시범 사업화로 재배 시설 구조 개선에 의한 스마트 농업의 정착을 도모하고, 기후 변화와 농업 전망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남양주 지역에 맞는 올리브 등 아열대 작목과 소과류 등 신품종과 새로운 작물을 보급하여 틈새시장을 겨냥하는 지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을 기능성이 함유된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최근 체험형 여가 문화 확산에 따라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자원을 활용한 산촌, 과수, 도시, 유기 농업형의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 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을 올리게 하고 있다.

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 냄새 해결을 위해 저감 기술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농약 허용 기준 강화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가겠다.

Q. 먹골배가 유명한 곳이 남양주다. 이를 활용해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나 사업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과일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남양주 먹골배도 추석·설 명절에 선물과 제수용으로 사용하는 배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찾는 과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양주시에서는 신고배(품종명) 일부를 신화, 한아름, 조이스킨, 슈퍼골드, 그린시스 등 8월 중순부터 10월 간격으로 새로운 품종배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신 품종 묘목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남양주 먹골배 직거래 판매장을 통해 8월 중순에 물이 많고 과육이 부드러운 한아름 배를 볼 수 있으며, 9월 초에는 사과 크기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황색 배인 조이스킨, 9월 중순에는 빠른 추석을 위한 신화배를 만날 수 있고, 9월 말에는 큰 황금색 배로 슈퍼골드, 큰 청색 배로 그린시스가 찾아 갈 것이며 10월부터 다음해 설 명절까지 신고배를 즐길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신품종 묘목으로의 갱신을 위해 남양주시 농업 기술 센터에서는 재배 기반 조성, 저온 피해 예방, 스마트 시스템 설치, 수확 후 저장성 향상 기술 보급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배는 4월 초 꽃 필 무렵의 저온과 서리에 의한 피해 및 7~8월 고온과 열대야로 인해 배의 모양과 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 예측하고 예방하고자 과원에 방상 팬과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배 시장 출하량 조절과 연중 아삭하고 신선한 고품질 배 공급을 위해 저온 저장고 내 플라즈마를 활용한 에틸렌 제거 등 장치 설치를 통해 저장성 향상 기술 보급 사업을 병행한다.



관동혁 남양주시 농업 기술 센터 원장 (사진 제공
«남양주시 농업 기술 센터»)

Q. 남양주 농업 기술 센터는 자체적으로 그린 학습원, 치유 농업실 등 농업 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호응이 높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성과 소개 및 향후 계획은?

· 남양주시 농업 기술 센터는 2006년 28,849㎡의 부지에 농업 체험 공간인 그린 학습원을 조성하였으며,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치유 농업 공간을 조성하는 비전을 갖고, 사계절 아름다운 그린 학습원 운영, 도시 농업 지원 센터 및 도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역할 확대, 치유 농업 센터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봄가을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단체 견학 문의가 빗발치는, 연간 4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농업 체험 명소이다.

도시 농업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2016년 도시 농업 지원 센터와 도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 받아 26명의 마스터 가드너를 배출하여 학교 텃밭 20개소를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국가 자격증인 도시 농업 관리사 40명을 배출하는 등 도시 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2016년에 설치한 치유 농업실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5월 초 제1회 도시농업한마당을 통해 2,000명이 그린 학습원을 방문해 다양한 농업 체험과 전시회, 씨앗 편지 쓰기, 허브 나누기 등을 참여하였으며, 올해도 제2회 도시농업한마당을 개최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 협력의 길을 찾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다.

2019년도에는 노후화된 곤충관과 자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도시화 되어가는 남양주시에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농업 체험 공간으로 도시 농업 지원 센터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계획이다.

Q. 남양주의 귀농·귀촌 교육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남양주시 농업 기술 센터에서는 남양주시로 귀농·귀촌 또는 희망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 농업 기술 센터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은 재배 기술 전문가와 전문 농업 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귀농 희망 작물 중심의 체계적인 기초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원하는 시민들의 농업 정보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이해와 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촌 사업 계획서 작성법, 농촌 생활 적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농 초기의 경험 미숙에 따른 작물 재배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재배 포장 현장 교육과 소형 농기계 운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남양주시 귀농·귀촌인과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4월 중순부터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월 27일 남양주평생교육포털 다산서당을 통해 공지가 되며 3월 4일 10시부터 다산서당을 통해 교육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Q. 남양주시 농업 기술 센터의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 편리하고 스마트한 농업 기계의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융복합 농업 육성을 통한 관광지 조성, 남양주 먹골배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첨단 농업으로 지역 농업 활성화를 꾀하고, 소규모 창업농 지원 및 안전 농업 기반 조성, 시설 원예 안정 생산 시스템 구축, 시민이 행복한 도시 농업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축할 것이다.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창조적 농업 전문가와 농촌 문화 발전의 주역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건강한 농촌 생활 문화 정착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융복합 스마트 농업으로 최고 농촌 지도 사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영국 기자 syk@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스마트팜 도입 농가 생산량 증대·품질 향상

314농가 146ha, 증·감산품 줄고 노동력 60% 감소

등록 - 2019년 2월 10일 오후 2:22 / 수정 - 2019년 2월 20일 오후 2:22

3



“스마트팜요? 가족을 돌려준 고마운 존재죠...”

9년 전 귀농해 경주 감동면에 아람농원을 운영하는 김인수(45)씨는 스마트팜 도입 3년 만에 전문가가 됐다.

토경재배때 계급미터(m)당 7kg 수준에 머물렀던 생산량이 고설 양액시설과 스마트팜 ICT를 도입한 후에는 247%(m당 24.3kg)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등와 상품도 30%에서 전라 출하가 가능할 만큼 품질이 균일하면서 좋아졌고 투입 노동력도 3분의 1로 줄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스마트팜 도입 농가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4 농가 146ha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 지원을 시작한 2014년 4ha에 비해 142배가 늘어난 면적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설비 관련 인증제도와 표준화 미비로 높은 투입비용에 비해 스마트팜 효과에 대한 확신이 낮았지만 최근 도입 효과를 보는 농가들이 생겨나면서 신규 진입 농가가 늘고 있다는 게 경북도의 분석이다.

이처럼 스마트팜 도입 농가 증가에 따라 경북도는 시설원에 분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19억5600만원을 투입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현재 시설원예와 축산을 중심으로 주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비단 첨단온실·최신식 축사뿐 아니라 기존 농가들이 보다 편리하고 향상된 결과물을 얻는 모든 과정이 스마트팜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양한 품목과 형태의 스마트팜 확산 의지를 밝혔다.

대구일보=문경화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올해 경북지역에 주로 재배되는 토마토, 오이 등 시설 과채류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스마트팜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Smart Farm)'은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추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을 융복합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재배환경을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생육을 진단하며 작물생육을 최적 상태로 관리해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경북형 스마트팜'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후방 기업들과 연구기관, 농업인이 협업해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경상북도의 스마트팜 정책·보급사업과 연계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간다.



주요 R&D 과제로는 추력 과채류인 완숙 토마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력강화를 대목을 선발하고, 적정 양액관리 등을 연구해 장기 수경재배 기술을 정립하는 것이다.

오이에서는 생산관리 전 과정(육묘, 재배관리, 병해충방제, 수확·유통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생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육과 영양상태 등을 실시간 진단해 최적의 성장 모델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참외, 토마토, 딸기, 오이 등 8개 작목의 생육, 환경, 수량, 수익성 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최적의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해 3세대 스마트팜의 기반 구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박영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ICT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생육환경, 정밀진단관리 등을 통해 노동력은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지역 농업현장에 접목 가능한 '경북형 스마트팜' 모델이 개발, 정착돼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